광양시, 맘톡 행복톡 콘서트 성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주제 공감 · 소통

시 정책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처음 시도해

광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맘톡 행복톡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 정책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육분야 순천제일대 최진숙 교수와 저출산분야 광양보건대 정미자 교수 등 두 분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히, 통기타가수와 싱어송라이터 등 뮤지션이 패널로 참여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 콘서트 시작에 앞서 광양시가 표방하고 있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통기타 가수 주권기와 싱어송라이터 조수현씨의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콘서트를 찾은 200여 명의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정책에 대한 바라는 점을 스케치북에 적어 무대로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콘서트가 마무리 됐다.

콘서트에 참여한 한 시민은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출산 장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즐거워하는 광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숙 광양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광양시의 정책을 좀 더 알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교육 발전 대토론회' 개최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은 오는 20일 오후 1시,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학부모, 교원, 기관, 단체, 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광양교육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양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범 시민 교육 나눔 마당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 20만 규모 지방도시의 교육발전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광양교육의 현재를 살펴보고, 교육공동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 비전을 반영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제영 교수(이화여대)의 '광양교육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영정 교수(전북대)의 진행으로 서문식(광양시청 경제복지국장), 문승태 교수(순천대), 주복임 교장(광양여고), 김정태(전 광양시의원)등 지자체와 학교 및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광양교육발전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건의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 토론회를 통하여 광양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시 임산부의 날 기념 건강강좌 및 태교 음악회 개최

임산부 배려 · 출산장려 앞장

순천시는 최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제12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배려 및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강좌와 태교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태아와 함께하는 열 달'이라는 주제로 미즈여성아동병원 조혜연 원장의 강의시간을 마련하여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태아의 정서와 지능, 오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 태교 음악회에는 실력파 그룹인 '아잉클랑'이 플룻, 첼로, 바이올린 등 감미롭고 신나는 무대를 마련했다.

또한, 임산부의 날을 맞아 행복한 다자녀 가정을 만들어 주위에 귀감을 주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다산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더불어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액자 만들기 체험, 스트레스·혈관 건강도 측정, 암 검진 홍보, 금연, 감염병 예방대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장려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임산부가 행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볼거리 풍성한 '국화향연' 준비 한창

먹거리 · 체험 프로그램 확대…27일 남산공원서 개막

화순군은 오는 27일 개막하는 '2017 화순 국화향연'을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국화향연은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17일간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에서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 산 너머 국화밭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군은 축제 명칭을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에서 '화순 국화향연'으로 바꾸고, 축제장 규모도 5ha로 확대해 올해 군 대표 축제로 격상했다. 특히 여느 축제보다 볼거리와 먹거리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한 주민 참여형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산공원 남문 가로수길에 야간 빛 거리인 '국화夜(야) 거리'가 조성되고, 관광객과 함께하는 연극, 마임, 마술 등 프린지 공연이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성안벽화마을과 연계해 '화순 성을 지켜라' 병장기 놀이 체험과 김삿갓 방랑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부대행사로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재능기부 공연,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운주사 일원에서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열리며, 축제기간 중 화순적벽 버스 투어가 매주 월·화·목·금(10월27일, 30일 ,31일, 11월2일, 3일, 6일, 7일, 9일, 10일) 9일간 연장 운행된다.

27일 오후 6시부터 남산공원 정문 교차로에서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김연자 등 유명가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시민과 대화 호응 속 마무리

21회 시민 4000여명 참여 · 건의사항 160여건…공감대 형성

순천시가 시민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을 공유하고자 추진한 '2017 시민과의 대화'가 16일 도사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연례적 초도순시? 연두순시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시민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시민과의 대화는 지난달 14일 향·삼산·매곡·중앙동을 시작으로 도사동까지 24개 읍면동 시민 4000여명이 함께 했으며, 건의사항도 160여 건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 높고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2018년 시정 계획 공유, 시민 건의사항 수렴,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시민목소리 청취에 주력했다.

경제·일자리, 생태·환경, 농업, 도시, 시민 행복시책 등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일자리 1만개 창출, 정원·반려산업 육성, 로컬푸드 사업 확대, 신도심생태문화지구 조성 등 10대 핵심시책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 시민들에게 가장 호응을 얻었던 정책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의 높아진 위상, 잡월드, 도시재생 등이다.

특히,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민선6기 조충훈 시장의 시정철학을 적극 반영해 그동안 과·소에서 편성했던 예산을 읍면동에서 시민들과의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을 계획하고 직접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2018년 행정 시스템에 많은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민원은 160여 건으로 이중 도로개설·확장·포장 등 도로 관련 건의사항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차장 설치, 경로당 신설 등 교통, 복지 관련 생활 주변 불편 민원 및 정원의 도시인만큼 가로수 정비, 꽃나무 식재 등의 경관을 중요시 하는 건의도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19일 방문한 낙안면에서는 한 주민이 "마을에 쓰레기차가 운행되지 않아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고 불법투기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조충훈 시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현장에서 바로 검토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2주에 한번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였다.

또한, 도로 관련 토지보상, 무허가 축사 등 법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무조건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한다면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장이 꼼꼼히 직접 시민 불편사항을 챙기고, 해결 가능한 민원은 즉시 처리해 주는 등 진정성 있는 시민과의 대화였다"고 말했다.

조충훈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에 직접 체감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잡월드 유치 등은 28만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2018년에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생활 속 각종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검토해 2018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